2008 전망과 트렌드

❶ 나만의 이력 만들기 붐

자격증으로 이력서 채운다

자기 계발 집중 투자…자격증 2~3개 필수

새해 학원가 대학생·직장인들 공부 열풍

'나만의 확실한 캐리어를 갖추어라.'

2008년 무자년(戊子年) 새해 직장인, 대학생에게 내려진 지상과제다. 일종의 자기계발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다. 2007년이 '신정아 파문'으로 촉발된 '허위와 거짓의 소용돌이'의 해였다면 올해는 '실속파들의 자기계발 열풍'에 휩싸여있다.

최근 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직장인 2천105명에게 새해 소망에 대해 물어본 결과 24.4%가 '자기 계발'을 1위로 꼽았다. 승진·연봉인상(20.8%), 재테크(18.5%), 연애·결혼·출산(11.5%), 이직(5.6%)은 후순위였다.

실속파 직장인들의 자기계발 1순위는 역시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 기업체 홍보물 제작 광고기획사를 운영하는 김의태(35·광주시 북구 임동)씨는 며칠전 큰맘먹고 컴퓨터그래픽기능사를 따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다. 김씨는 그동안 자격증 없이 인맥을 발판으로 영업해왔었다. 김씨는 "아무래도 자격증을 취득해 체계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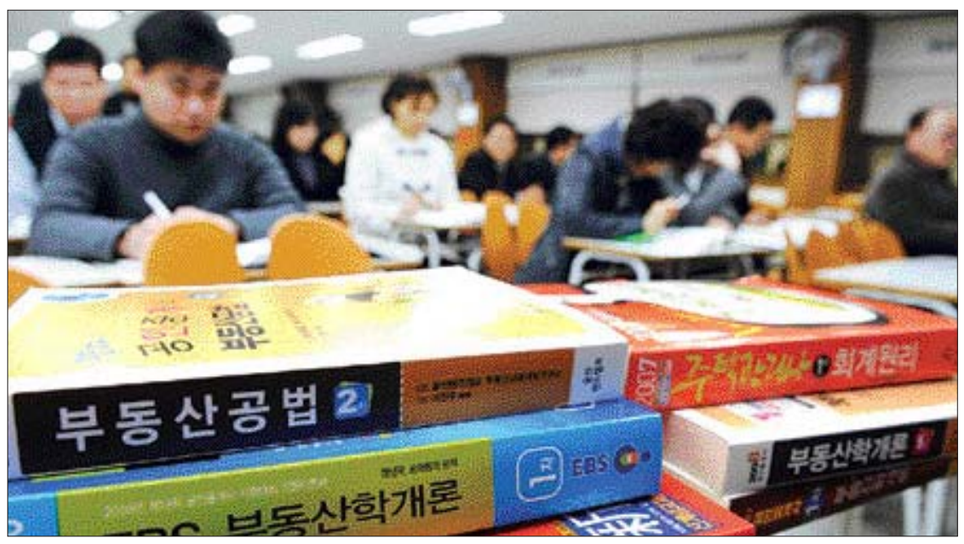
연초부터 자격증 관련 학원과 인터넷 교육 사이트는 자격증을 따려는 직장인, 대학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학원도 덩달아 바쁘다. 광주시 동구 대의동 광주고시학원에는 지난해 말 이미 100여명이 새로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과정에 등록했다. 하루 20~40여명이 방문·전화 상담을 받고 있다. 광주시 북구 광컴직업전문학교의 30명 정원인 웹디자인기능사, 인터넷정보관리사, 정보화기초 등의 과정이 모두 꽉 찼다. 연령대도 1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천차만별이다.

취업을 노리는 대학생들에게 자격증 2~3개는 필수다. 취업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사무자동화, 정보처리기사자격증은 반드시 따야 할 필수 자격증이다. 최근에는 펀드 열풍이 불면서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따려는 학생도 늘었다.

인터넷 교육 사이트도 성업 중이다. '고시즌'(http://www.gosizen.com)·'컴공닷컴'(http://www.comgong.com) 등 사이트에는 공무원시험, 컴퓨터 관련 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강좌가 400여개나 개설돼있다. 사이트당 하루에도 수천~수만명이 접속해 동영상 수업을 받고 있다. 수강료도 1만5천~9만9천원으로 다양하지만 학원보다는 훨씬 싸다.

광주고시학원 한동호 원장은 "해마다 1~2월에 학원이 붐비기는 했지만 올해는 유독 수강생이 많아 지난해보다 20~30% 늘었다"면서 "지난해 유명인들이 잇단 거짓 경력으로 물의를 빚어 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자격증으로 이력서를 채우겠다는 열풍이 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구랍 31일 광주시 동구 대의동 광주고시학원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반 수강생 30여명이 강의를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겨울방학 기간 시내버스 12% 감축 운행

광주시는 1일 대부분의 초·중·고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감에 따라 시내버스를 하루 평균 11.8% 감축 운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방학기간인 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54일간 하루 평균 운행하는 시내버스 900대 가운데 170대를 줄여 운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평일의 경우 42개 노선의 72대(8.0%)가 줄어들며 첫째·셋째·다섯째 주 토요일에는 48개 노선의 136대(15.1%)가, 둘째·넷째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50개 노선의 178대(19.7%)가 감차 대상이 된다.

시는 학생 승객이 많은 간선 노선을 중심으로 투입 대수를 줄여 운행 간격이 2~3분 가량 늘어나게 되며, 운행대수가 적은 지선 노선은 5분 가량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감차로 운행 간격이 20분 이상 늘어나는 노선의 경우 최대한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

니켈수소·망간전지 등 폐전지 3종 분리수거 수거함 596개 설치

광주시는 1일부터 유해성이 높은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3가지 폐전지에 대한 분리수거를 시행한다.

이들 3종류의 건전지는 그동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분리수거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관련 법률 개정으로 올해부터 EPR 의무대상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폐전지 분리수거를 위해 구청, 초·중·고교, 대형마트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596개의 수거함을 설치했다.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는 폐건전지를 종류에 구분 없이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면 되며, 분리 수거된 폐전지는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정후식기자 who@

자치구 새해 청사진

① 동구

문화 브랜드 파워 세계적 수준으로

"2008년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를 시작으로, 광주 '종갓집'의 명성을 되찾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유태명〈사진〉 광주시 동구청장은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아 문화전당 건립에 따른 '문화·예술·관광 3대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동구의 문화 브랜드파워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지역민들의 열망과 기대감을 반영해 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켜 동구만의 독창성이 담긴 문화·예술·관광 청사진을 만들어 내겠다"면서 "특히 예술의 거리~지산유원지~증심사·의재로 권역을 잇는 체류형 관광시스템을 구축해 문화전당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유 청장은 강조했다.

동구는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광산동 구 시청 4거리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육성 등 7개 권역별 특화거리 조성, 지산동·학동·동명동 등 14곳의 재개발사업, 13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62억원을 투입,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기획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유 청장은 "계림동 재개발 5-1구역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는 용산동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줄어만 가는 동구의 인구는 올해를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청장은 아울러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건강정책 마련에 힘쓰고 ▲의료기관과 연계된 건강증진사업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 ▲노인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확대 등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새로운 동구 건설'이라는 원대한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프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새해에는 12만 구민과 600여명의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 문화수도 위상 '껑충'

문화콘텐츠 기술硏·중앙도서관 분관 유치

국회 예산 반영…올해부터 건립사업 본격화

광주시가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과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등 2개의 대형 국립문화기관을 유치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는데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올해 정부 예산안에 각각 1천300억원이 투입되는 두 기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건립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며, 구체적 위치는 용역을 토대로 확정된다.

착공 시기는 두 기관 모두 오는 2009년이며, 2011년 말 완공된다.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은 10만㎡의 부지에 연면적 6만㎡ 규모로 지어져 미래 문화산업을 주도할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된다.

게임과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음악 콘텐츠 등 미래 문화산업 제작 기술을 중점 연구하게 되며 미술품과 공예품 등 창작도 지원하게 된다.

이 연구원이 완공되면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광주과기원, 광주디자인센터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은 3만3천㎡의 부지에 연면적 4만㎡ 규모로 짓게 된다.

분관은 자료보전관, 열람실, 공연장, 전시실 등을 갖추고 세계 각국의 역사·문화 자료를 수집, 관리하는 국가도서관 기능에다 전통 예술과 민속, 민주·인권 자료 등 지역 특화 자료를 모은 지역 도서관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다.

특히 이 분관은 디지털 자료실과 열람실 등 디지털 환경을 갖춘 '디지털 도서관'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국립 문화기관이 광주에 들어서면 아시아문화전당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광주를 국내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담

●당직변호사(30일)	
오영표	222-3800
●법무사회 법률상담(22일)	
이남주	370-0600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상록법률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고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광주경찰청	222-0112
전남경찰청	36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기동수사대 (광주)	229-0118
(전남)	367-011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1389